인터뷰 = 외국인 근로자 공동체 대표 ⑤

인도 힌두교 대표 파비트로

"外國人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하지 마세요"

"마음 편하게 일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해 주세요"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122번지에 위치한 하리 크리시나 사원에서는 격주 일요일마다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중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공부를 하고 있다.

이곳에서 힌두교 신자들을 교육하는 이는 한국인 황보 진 목사다. 황보 목사는 청년시절 이스라엘 키부츠에서 얻은 경험과 장기간 영국에서 살며 힌두 종교인들과의 체험, 나아가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힌두사제 서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 신사동과 이곳 이동교리에서 격주로 강론을 하고 있다.

인터뷰를 한 3월25일은 신사동에서 모이는 날이다. 12시에 약속을 하고 신사역에서 만나 부강빌딩 3층 I LOVE YOGA원에서 인터뷰를 했다.

이곳에서 만난 파비트로씨(33)는 포천시 영중면 양문공단 가구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한국에서 11년째 살고 있는 파비트로씨는 한 업체에 계속 근무하고 있다. 다른 회사에서 더 많은 봉급을 준다며 와서 일해달라고 해도 근무하고 있는 업체에서 너무 잘해주고 있어 배반할 수 없다고 한다. 경기가 어려워 다른 곳보다 월급이 적어도 계속 근무하겠다고 밝혔다.

파비트로씨는 아침 6시에 기상해 기도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기도는 주로 만트라 명상으로 한다. 만트라 명상은 "하리 크리시나 하리 크리시나 크리시나 크리시나 하리 하리 하리 라마 하리 라마 라마 라마 하리 하리"를 108번 반복하는 것을 1회라고 하며 모두 16회를 하루에 암송해야 한다. 그래서 만트라 명상에는 2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이 만트라 명상을 함으로써 영적 파장이 우주 삼라만상에 전달돼 나는 물론이거니와 모두가 잘되도록 한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다 한국으로 와 8년째 근무하면서 그동안 모은 돈은 8천여만원이 된다고 한다. 처음 5년 동안은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송금해드렸지만 그 이후에는 통장을 만들어 저축하고 있다고 한다.

힌두교인들은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위주의 식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파비트로씨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언어소통이 안돼 의사전달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제 한국어를 배워 훨씬 살아가는 것이 쉽다고 한다. 그러나 마음놓고 거리를 다닐 수 없는 점이 가장 큰 아쉬움이다.

한국정부에 바라고 싶은 사항에 대해 파비트로씨는 "외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무시하지 말고 이곳에서 일하는 만큼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비자를 내 주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한다.

각 회사 대표들에게는 월급을 제대로 주었으면 한다.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을 주지 않는 사장님이 있다고 들었다"며 "고생한 친구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지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포천시에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힘들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해결해주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늘 숨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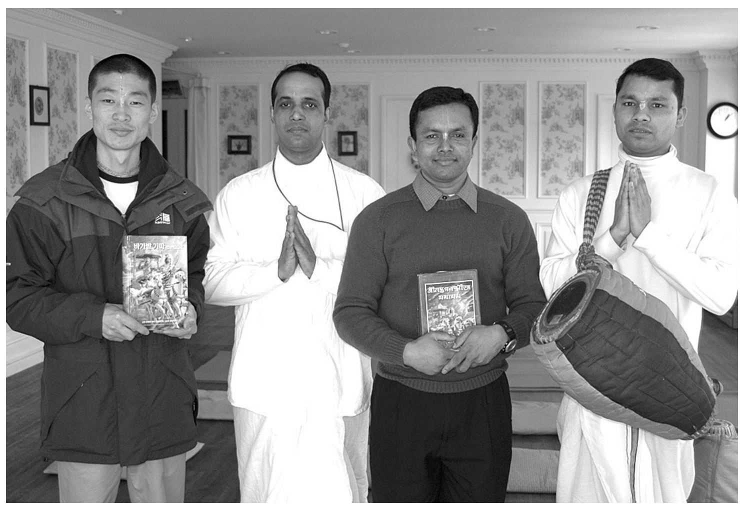
올해 포천시에서 개최할 계획인 축제에 대해 파비트로씨는 "마음놓고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해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축제의 현장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이나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한다.

이들에게 힌두교 경전인 바가받 기따를 교육하고 있는 황보 진 목사는 동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Bhaktivedanta college에서 바이시나비즘을 공부했으며 동국대 인도철학과 대학원에 재학중이다.

황보 목사는 "이들 힌두교인들은 매우 신앙심이 깊어 영혼이 맑고 깨끗하다"며 "이들이 한국에 와서 근로자로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포천시 가산면, 소흘읍, 영중면 등에서 거주하면서 중소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이들 50여명의 힌두교인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서로에게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있다고 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70만4천500원 本紙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기탁

군내면 농업경영인회 사랑의 모금함 운영으로

포천시 농업경영인회 군내면지회(지회장 이형구)는 지난 2월28일 군내면사무소 광장에서 제12회 군내면민 윷놀이 대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사랑의 모금함을 운영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윷놀이 대회와 함께 사랑의 모금함을 운영해 모금된 70만5천500원 전액을 본지 불우이웃창구에 3월2일 기탁했다.

성금을 기탁하는 자리에 농업경영인회 군내면지회 이형구 지회장과 엄미숙 군내면 여성경영인회장, 박광붕 총무 등이 함께했다.

지난 2월28일 개최된 군내면민 윷놀이 대회에서 여성농업경영인회는 빈대떡과 김치, 홍어무침, 제육볶음, 떡, 과일 등 푸짐한 음식을 준비해 대회에 참석한 노인들에게 제공해 훈훈한 자리를 마련했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구독문의
031-542-1507

추천! 이야기 한마당

가장 하기 쉽고, 듣기 좋은 말들

이보용
본지 자문위원

① 잘 지냈는가

"잘 지냈는가?" 물어오는 당신의 안부 전화는 하루종일 분주했던 내 마음에 커다란 기쁨 주머니를 달아주는 말입니다.

② 고맙소

"고맙소" 가만히 어깨 감싸며 던진 말 한마디는 가슴 저 깊이 가라앉는 설움까지도 말갛게 씻어주는 샘물과 같은 말입니다.

③ 수고했어

"수고했어" 엉덩이 톡톡 치며 격려해주는 당신의 위로 한마디는 그냥 좋아서 혼자 걸레질 하고 난 신나는 말입니다.

④ 최고야

"최고야" 눈 찔끔 감고 내민 주먹으로 말하는 그 말 한마디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가슴 뿌듯한 말입니다.

⑤ 사랑해

"사랑해" 내 귓가에 속삭여주는 달콤한 사랑의 말 한마디는 고장난 내 수도꼭지에서 또 눈물을 새게 만드는 감미로운 음악과도 같은 말입니다.

- 좋은 글 중에서-

(문의 011-342-5834)

＊용경자의 세상읽기 3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3년 전부터 일거리가 조금씩 줄어들어서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5년 초여름에 대박의 꿈을 안고 월드컵 트로피저금통을 칠할 기회가 있었다. 그것이 쪽박 일 줄이야…. 계산상으로는 빚 청산도 하고 여유자금도 생길 것 같았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끌어 모아 주야로 공장을 가동시켰다. 기술자 3분, 보조아줌마 8분, 우리식구 4명은 땀과 먼지 그리고 더위와 싸우며 열심히 물건을 칠했다. 2.5톤 화물차로 계속 물건을 받고 띄우기를 보름정도 했을까?

결재대금이 하루 이틀, 일주일이 미뤄져서 찾아가 보니 물건이 창고에 가득 쌓여 있었다. 잘 팔리지가 않았던 것이다. 그때부터 그쪽에선 칠에 대한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3개월에 걸친 실랑이 끝에 결국엔 우리가 포기하고 말았다.

때마침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안내장이 왔다. 소상공인 특별자금대출이었다. 사람이 죽으란법이 없다는 말이 이래서 생겼나 보다.

마음을 추스리고 돈 마련을 하여 주변정리를 했다. 인건비에 자재비에 1천만원을 보름만에 눈앞에서 날려 버렸다.

가뜩이나 힘든데 더 큰 고비를 넘기고 나니 이젠 오히려 여유가 생기더라. 땅 끝까지 몰리면 포기하게되고 포기하고 나니 여유가 생겨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 어려운 고비를 함께 넘기고 나니 신랑이 안쓰럽고 더 애틋해지더라. 그래서 바가지를 긁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에 가슴이 저며오더라.

하지만 열심히 일하려고 마음먹으니까 일거리가 없어서 걱정이다. 그나마 기술이 있어서 문 안닫고 있지만 요즘 경기를 보면 걱정이다. 공장을 임대해서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사면초가다. 접어 버리자니 망막하고 계속 유지하자니 적자가 나니 말이다. 그래서 2007년을 맞이하여 좋다는 것은 다했다. 보살님을 모셔다 고사도 지내고 삼재풀이도하고 부처님 전에 식구들 등불도 켰다. 초하룻날엔 공장에 막걸리도 붓고 차에 염주도 걸고 아들 딸 신랑 모두 염주팔찌와 부적을 지니고 다니게 했다.

이 정도로 했으니 조금은 나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고 열심히 100번 이상 기원을 하면 꼭 이루어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믿음을 가지고 기원해봐야겠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공장이 잘 돌아가 자식공부 시키고 부모님께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해주소서." 라고….

시인의 窓

소한에

임관영(시인, 포천시문인협회장 역임)

소한에
나뭇가지가 뚝뚝 부러지는 날
눈밭에 여우가 캑캑 울어대는 날

소한은
황소 아래턱에 고드름 달리고
마부 수염에 안개꽃 피는 날

소한은
문고리가 쩍쩍 달라붙는 날
자릿기가 땡땡 얼어붙는 날

그러나 이제
스모그 온실에서 시름시름 하는 날

덕담도 세월 따라 바뀐다지만
소한도 세월 따라 비가 내리네
우수도 경칩도 멀고 먼 날
오늘 소한에 비가 내리네
봄비처럼 내리네

〈감상노트〉

때때로 우리는 찌들고 피곤해진 일상을 들고 세월과 마주한다. 순리를 거역하지 않고 언 땅에 봄은 그 시간이면 그 자리에 분명 다시 올 거라, 인간은 굳게 믿는다. 이 얼마나 다행스런 축복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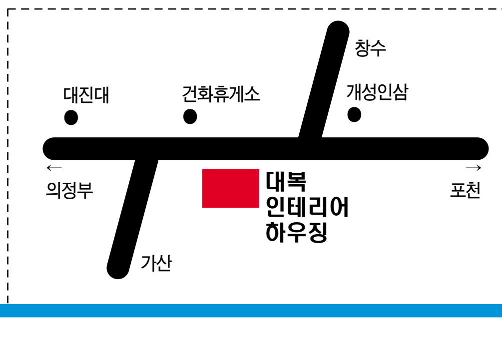
사람들이 싫어하던 좋아하던 여지없이 오고야 만다. 그러나 사람은 들판에 피는 들꽃에게 손 한 번 내민 적이 있나, 늘 우리가 쳐놓은 울타리 안에서 세상살이로 숨이 차다.

어찌 인간의 춤사위만이 위대한가. 숲 속에 이는 바람과도 만나야 하고 부러진 소나무의 줄기도 어루만져 볼 일이다. 잔인한 4월이 오면 여럿이 봄 소풍을 가보자구요.

안 익 수(시인)

내부인테리어 리모델링 전문업체

좋은 생각이 나거든 망설이지 말고 바꾸세요

벽지, 장판, 페인트, 조명, 버티칼, 샷시, 마루공사, 화장실공사, 베란다 확장공사 등 가격에 자신있기에 무료 출장견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상 호 : 대복 인테리어 하우징
- 대 표 : 유 병 호
- 주 소 : 포천시 선단동 82-14(☎031-542-8818)
- 홈 페 이 지 : www.daebokart.com
- 장암영업소 : 031-871-2002
- 경 기 상 재 : 031-829-8901
- 방학영업소 : 02-954-1481
- 구리상재(주) : 031-529-5072~3